



◀ 조병완 '아리랑, 좋은 날'에 전시될 작품들.

▶ 도립미술관, 조병완 '아리랑, 좋은 날' 개인전 21일까지

격변의 시기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작품 속 노송, 현대사회의 건강한 길잡이로 표현

'아리랑'이 품어 온 문화적 독자성과 민족의 염원을 담은 한국의 정신을 푸른 쪽빛에 풀어 내놓는 조병완 작가.
조 작가의 '아리랑, 좋은 날' 개인전이 전북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다.
그간 호랑이를 의인화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선 격변과 혼란의 시기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낸다.
작가는 오솔길, 숲 속의 정자나 석담, 그리고 몇 그루의 나무를 소재로 삼아 그린다. 노

송과 정자 등의 모티브들을 배열한 작업은 한눈에도 전통적인 민화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작품 속 노송은 몇 백 년 세월의 온갖 풍상 속에서도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의연하게 뿌리 내리며, 현대사회의 건강한 길잡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도시의 주변 공원과 산의 근경을 통해 우리 주위 자연의 생생함과 정겨움을 살출하지만 작가만의 차분한 푸른색으로 표현한다. 따뜻한 터치감이 발현된 청색에는 소망과 염

원이 실렸다.
조 작가는 세월호 참사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해석한 작품도 동시에 선보인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괴물은 해부되고 있지만 진실은 언제 뼈를 드러낼까. 잔인한 4월은 언제 명백한 4월이 될까'라며 세월호에 대한 단상을 남긴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전북도립미술관(유회하는 인간전) 및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 활동을 펼치며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는 21일까지. /정해은 기자

음악공연으로 무주 반딧불축제 분위기 'UP'

내달 1일 '무주아리랑' 반딧불축제장 주무대에서 진행

관현악단 무대 올라 '한민족 기상곡'·'황진이' 등 협주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음악공연의 장으로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무주아리랑'을 반딧불축제장 주무대에 올린다고 밝힌 무주군은 이 공연이 군민과 관광객, 남녀노소 모든 계층과 연령층을 아우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 올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9월 1일 저녁 7시 30분부터 반딧불축제장 주무대에서 진행되는 '무주아리랑'은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하며 원영석 씨(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화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42인조 양악관현악단이 함께 한다.
이날 무대에 올려지는 피아노협주곡 1번 '한민족 기상곡(이하나 피아노 독주)'을 비롯해 해금과 협주곡 '문화-끝없는 사랑(고수영 해

금 연주)',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황진이(노래 최수정, 해금연주 김수민)', 교향곡 1번 '무주(작사 정진권, 노래 이엘)', 그리고 군민을 위한 '무주 아리랑'은 모두 김대성 작곡가의 작품(작·편곡)이다.
특히 교향곡 1번 '무주'와 군민을 위한 '무주 아리랑'은 무주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대성 작곡가가 애정을 드러낸 작품으로, 교향곡 1번 '무주'는 2관편성의 관현악곡으로 1악장 '연민과 절규', 2악장 '이별 그리고 눈물', 3악장 '위로의 마음과 손길', 4악장 '혼돈과 악과의 전쟁', 5악장 '무주아리랑'으로 구성돼 있으며, 작곡가는 이곡에 무주의 자연과 공기, 인정을 담았다.
무주군민을 위한 '무주아리랑(작사 정진권,

노래 최수정과 이엘)'은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첫 선을 보이는 곡으로, 무주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노래로 표현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아리랑'을 직접 배우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대성 작곡가는 "아름다운 무주에 거주하며 곡을 쓴지 올해로 3년이된다"며 "그동안 무주의 맑은 공기와 자연을 벗하면서 쓴 다수의 곡들이 서울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다수의 장소에서 연주되면서 호평을 얻고 있는 만큼 그 곡들의 감동을 반딧불축제 관객들과도 꼭 나누고픈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무대 위에 오르는 전 곡을 만든 김대성 작곡가는 한국의 슈베르트로 불리는 국악작곡가로 '화선 김홍도'를 비롯해 '명성황후(발레)', '영국 비비킨 홀 관현악곡 열반' 등 관현악 및 기악, 성악작품들을 작곡했으며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도 관페라 가수 임태경과 '무주아리랑'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오늘 상영작... '공범자들' '내일의 안녕'

'운명의 갈림길에 선 자의 용기있는 선택'

공범자들, 공영방송 망친 주범·공범자들 실제 생생하게 다뤄
내일의 안녕, 시한부 삶 속에 살던 주인공에게 새 생명 찾아와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운명의 갈림길에 선 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잔잔한 울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공범자들'과 '내일의 안녕'을 17일 개봉·상영한다.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공범자들의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자백'의 최승호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지난 10여년간 KBS, MBC, YTN 등의 주요 방송언론사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측 관계자들의 모습은 물론 공정방송을 강취하려는 언론기자들의 행동들까지 세세히 기록했다.
영화는 권력에 마취당해 입을 다물어 온 공영방송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좌초시켰는지 당사자들을 증언과 자료를 통해 생생하

게 보여준다. 그리고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충실히 부역한 '공범자'들을 찾아가 책임을 묻는다.
특히 수많은 공범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언론 장악의 책임을 추궁 당한다.
공범자들은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났으며,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한편의 영화 '내일의 안녕'은 남편과 의 별거 중 찾아온 시한부의 삶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보듬어주던 '마그다'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작품에선 새 생명에 대한 설렘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내는 '마그다'를 연기한 페넬로페 크루즈의 인생영기를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소리문화전당, '상상놀이터'에 문화소외계층 초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상상놀이터 색·빛·소리'에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한다.
'상상놀이터'는 다양한 표현방법을 가진 예술작품을 놀이와 결합한 관객체험형 전시로,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전시는 색(Color), 빛(Light), 소리(Sound) 세 가지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마다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접하던 색과 빛, 소리를

새롭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번 문화소외계층 초청은 객석 나눔의 일환으로, 아동복지기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 소년가정, 장애인, 도서벽지 청소년 등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ori783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KBS 1TV 국악한마당, 19일 군산서 개최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인 KBS 1TV의 '국악한마당'의 신명나는 공연이 오는 19일 오후 4시 군산예술의전당에 펼쳐진다.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KBS 국악한마당은 1990년에 시작한 '국악춘추'를 모태로 시작되어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명인, 명창들과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를 한자리에 만나 볼 수 있는 국악 전문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국악한마당 - 군산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작곡가 예능보유자인 송순섭 명창과 군산 출신의 국보급 소리꾼 김수연 명창의 무대, 그리고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환상적인 소리를 관객들에

게 선물하는 소리꾼 고영열과 퓨전밴드 '두 번째 달'의 합동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금강방송 홈페이지 사전예매와 공연당일 공연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관람권 배부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하는 기회"라며, "국내의 내로라하는 명인, 명창들이 펼치는 최고의 무대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고 감동적인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KBS 국악한마당-군산편'은 오는 9월 9일 오후 1시 15분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된다. /군산=장 현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